

지방 名門私學을 지향하는 大田大學校

吳 熙 弼

(大田大 總長)

1. 建學 理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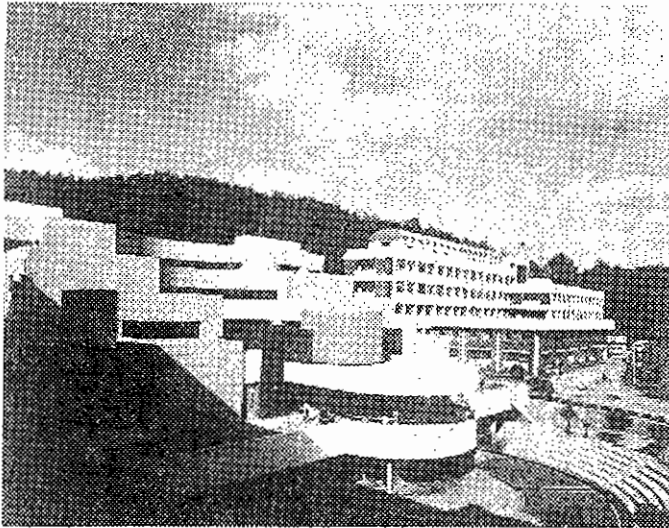
대학의 연륜으로 볼 때 8년이란 세월은 매우 짧은 역사라 할 수 있다. 개교 8년만에 5개 단과대학을 거느린 종합대학교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한 대전대학교는 故 志山 林達圭선생이 '國家發展' '文化創造' '社會奉仕'라는 3대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80년 10월 30일 설립하였다. 본교는 어느 특정 종파나 특정 기업에 예속되어 있지 않으며, 자신이 이루어 온 제산을 사회에 환원시키겠다는 신념에 따라 설립자인 志山 林達圭선생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학교법인 '혜화학원'에 출연하여 설립한 순수한 민간 대학이다.

이렇게 설립된 대전대학교의 건학 이념은 근본적으로 대학이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성과 양심의 요람이요 진리의 전당이며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설립자의 투철한 신념을 바탕으로 하여 모든 지혜와 용기 그리고 사랑으로 국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미래의 인재를 길러 내리는 교육적 이상을 담고 있다.

본교의 3대 건학 이념 중 첫번째의 '국가발전'은 국제적 평화 추구, 경제적 번영, 사회적 정의 구현 등의 시대적 과제를 지향하고 있는 현대 국가를 이끌어 나갈 지도적 인물을 육성하는

데 기여하고, 특히 중앙집중적인 우리나라 특유의 교육 현실과 전통을 극복하여 앞으로의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지방 명문 사학을 이룩하여 대덕 연구 단지를 배경으로 첨단 과학 기술 단지 와 고도 산업 사회의 중심지로 부각되고 있는 대전 지역에서 이 지역 최고의 교육 기관으로 응비하려는 이상을 담고 있다. 특히 타 지역에 비해 사학의 발전이 매우 낙후되어 있는 이곳에서 충청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각처의 영재를 서울 집중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내실 있고 특색 있는 지방대학을 설립하여 우리의 고질인 너와 나의 갈등과 대립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훌륭한 덕성과 지도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여 우리 국가의 발전과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첫번째 이상으로 삼고 있다.

두번째의 '문화창조'란 건학 이념은 물질 만능주의의 현대 산업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기 쉬운 전통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의 조화를 이루는 데에 공헌할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민족 문화의 창조와 발전에 공헌하려는 이상이다. 국가는 변해도 민족은 영원하듯이 민족에 끊임없는 생명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위대한 민족 문화를 창조하고 이를 이어갈 보다 차원 높은 안목을 구비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한 길임을 인식하여 우리 민족



◀ 첨단 과학 기술 단지
와 고도 산업 사회의 중
심지로 부각되고 있는 대
전 지역에서 大田大學校
는 이 지역 최고의 교육
기관으로 응비하려는 열
망을 갖고 있다.

고유의 정신과 전통의 생명력을 상징하는 민족 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나가고 현대적 문화를 균형있게 수용하여 새로운 문화 창조에 기여할 인재를 배출함을 두번째 이상으로 하고 있다.

세번째의 '사회봉사'란 건학 이념은 위대한 사랑의 정신, 즉 사회 봉사의 정신으로 인류애의 실현과 상호 화합의 사회를 구현하려는 이상이라 할 수 있다. 국가 발전 과정에서 초래되기 쉬운 지역간의 발전 격차를 해소하고 상호 화합의 핵이 될 수 있는 인물은 사랑과 봉사의 정신으로 훈련될 것을 필요로 한다. 정외롭고 창의적일 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여 민족애와 인류애를 바탕으로 하는 사랑의 사회를 실현하려는 이상을 세번째로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사회 봉사의 이념은 설립자 자신이 先代부터 이 지역 사회에서 인술을 실천해 온 유명한 한의사로서 평생을 지역 사회에 봉사해 온 신념에 일치하는 것이기도 하다. 설립자의 건학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본교는 구성원 모두가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設立 背景

본교 설립자인 故 志山 林達圭선생은 선친께

서 육영의 뜻을 두었으나, 그 뜻을 펴지 못하던 遺志를 이어받아 국가와 민족의 장래는 오직 교육의 백년대계에 달려 있다는 신념을 지니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육영 사업의 뜻을 성취하려고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러던 중 '70년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으로 발전하자 많은 고급 인력의 부족 현상이 일어나면서 각 산업체에서는 부설 중·고교를 설립하는 등 기술 인력 양성에 관심이 높아졌고, '80년대에 이르러 우리나라가 점차 고도 산업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는 가능성과 능력을 나타내자 志山선생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알맞게 인재의 양성 기관 설립을 검토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야간 근로자를 위한 야간대학을 세울 계획을 하였으나, 보다 보람있는 교육 사업은 심오한 진리를 탐구하고 국가 사회의 지도적 인물을 길러내는 4년제 정규대학의 설립에 있다고 결심하여 志山선생께서는 마침내 '80년 10월에 학교법인 '혜화학원'을 설립하게 되었다.

故 志山선생은 본질적으로 육영 사업이란 인간의 지식과 인격을 균형있게 함양시켜 나가는 것이 근본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하고, 우리나라가 장차 고도로 산업화되어 가고 다양한 정보 사회로 전환되어 감에 따라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는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는 4년제 대학의

설립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선친 때부터의 소망이며 숙원이었던 육영 사업 운영은 선친과 자신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志山선생은 미래의 동량을 양성하는 육영의 뜻을 펼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학의 설립이 평생 자신이 온 정성을 기울인 지역 사회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공헌을 실천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으로도 생각하였다.

마침내 '80년 12월 30일 문교부로부터 대전대학 설립 인가를 받게 되자 선대로부터 엄격하게 계승되어 온 철저한 근검·절약의 정신에 의해 일평생 모은 재산과 유산을 거의 처분하여 교지 142,520 평과 교사 건축비 21억 원을 학교법인에 출연한 것이다. 이러한 설립 사례는 이 지역의 어느 사립대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경우로 대전대학은 설립자의 개인 재산에 의해 설립된 대전 지역 유일의 순수 민간 사학이다.

대전대학을 설립한 이후로 총 150억 원에 이르는 투자를 하면서도 志山선생 자신은 초라한 구식 가옥에서 온갖 불편함도 말없이 감내하면서 시대에 걸맞지 않게 자가용 승용차도 없이 減私 牽公의 고귀한 인격을 발휘하였다. 사치와 허세, 오만과 독선을 배격하고 뜨거운 교육애로 오직 대전대학의 육성·발전에 모든 정성과 재산을 바쳤다.

특히 자신이 혜화당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였기에 민중 의학으로 계승되어 온 한의학을 학문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더욱 발전시키려는 집념을 갖고 한의학과를 설치하여 한의학과를 특성 학과로 육성시키는 데 지대한 정열을 쏟았고 한의학의 현대화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기에 부속 한방 병원의 개원 운영에도 뜨거운 열정을 기울였다.

다른 사학의 설립자와는 다르게 대학의 학사 행정이나 인사 문제에는 일체 간섭하지 않고 교수나 직원 채용에도 친·인척을 철저히 배제하는 고결하고 겸손한 인격을 실천하였다. 이러한 志山선생의 숭고한 정신과 인격 그리고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로 본교는 개교 당시부터 日就月將의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것이다.

'81년 3월 5개 학과 260명의 입학생으로 출발한 지 8년만에 26개 학과, 5개 단과대학에

1,110명의 입학 정원을 수용하는 명실상부한 종합대학교로 발전한 모습을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志山선생께서는 '88년 10월, 57세의 너무나 아까운 나이에 他界하였으니 새삼 삼가 故人에게 조의를 표하고 명복을 비는 바이다. 대전대학의 육성 발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志山선생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대전대학교는 계속적인 발전을 추구해 나갈 것이다.

3. 發展過程

학교법인 혜화학원은 '80년 2월 창립되어 대전대학 설립 준비에 착수하였다. 同年 9월 문교부로부터 대전대학 예비 설립 인가를 받고 10월 30일 정식으로 학교법인 혜화학원의 설립 인가를 받아 개교 준비에 들어가면서 초대 이사장에 임흥규선생이 취임하였고 12월 29일 대전대학 설립이 정식 인가되었다.

초대 학장에 김인제 박사가 취임하여 '진리' '정의' '창조'를 校是로 하고 '81년 3월 7일 대망의 입학식을 거행하였다. 개교 당시에는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행정학과, 경영학과, 수학과 등의 5개 학과에 입학 정원 260명으로 시작하였고, 갈마동에 있는 동산토건주식회사의 연수원 건물을 임시 교사로 사용하였다.

'81년 7월 용운동 캠퍼스에 대지 5천여 평, 건평 1,700여 평의 제1호관을 준공하여 갈마동 임시 교사에서 신축 교사로 이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81년 10월 한의예과, 경제학과, 무역학과 등의 증과 승인을 받아 '82학년도에는 8개 학과에 입학 정원 390명으로 발전하였으며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경영학과, 수학과에 교적 과정 설치가 승인되어 중·고교 교원 양성 기관의 역할도 시작하게 되었다.

'82년 3월 대전시 은행동에 부속 한방 병원을 개원하여 전통 의학인 한방 의료 기술의 과학화와 현대화에 앞장서고 지역 사회의 한방 의료 활동에 활기찬 기여와 봉사를 실행하게 되었다. 동시에 동·서 의학의 균형 있는 의료 시술을 실행하기 위해 부속 혜화위원을 설립하였다.

'83학년도에는 가정학과, 법학도가 증과되었고 10개 학과로 학교 규모가 발전하면서 개교

이래 처음으로 7월 21일 대만의 중국의약대학교와 자매 결연을 맺어 학문의 국제적 교류와 협력에 이바지하기 시작하였다.

'84학년도에는 학교의 규모가 문학부, 법정학부, 경상학부, 이학부, 2부 학부, 한의학부의 6개 학부에 13개 학과 입학 정원 650명으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84년 2월에는 지상 5층, 연건평 2,850평의 제2호관을 준공하였고, 10월 27일에는 고암 서정인선생이 일생 동안 수집한 귀중한 소장품 550점을 기증받아 총 561점의 각종 소장품을 갖추어 개교 4주년 기념 행사로 박물관을 개관하였다.

'85년 2월 23일에는 마침내 대만의 제1회 학사 수여식을 거행하는 감격을 맛보게 되었다. '85학년도에는 생물학과, 건축공학과, 전자계산학과, 2부 영어영문학과, 행정학과 등 5개 학과가 신설 증과되어 18개 학과에 입학 정원이 858명에 이르게 되었다.

'85년 3월 9일 김인재 박사가 제2대 학장으로 연임하였고, 6월 22일에는 일본 구마모토상과대학교와 자매 결연을 체결하여 국제화의 시대적 흐름에 보조를 맞추게 되었다. 이제는 형식적인 자매 학교를 탈피하여 교수 및 학생 교류를 정기적으로 실행하여 상호 문화 교류 및 학문의 교류와 협력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86학년도에는 토목공학과가 신설되어 19개 학과에 입학 정원이 900명으로 증가하였다. 12월에는 학생회관인 제3호관이 준공되어 각종 학생 단체 및 씨름 활동을 위한 공간과 시설로 활용하게 되었고 학생들을 위한 각종 복지 시설이 들어 서게 되었다.

'87년 1월에는 계속적인 증과·증원에 부응하기 위하여 제4호관을 준공하였다. '87학년도에는 계속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증과·증원이 동결되어 무역학과 20명, 생물학과, 2부 법학과가 각각 10명씩 정원을 감축하고 한의예과가 40명 증원되는 자체 정원내 조정이 있을 뿐이었다. 4월 30일 53억 원을 투입하여 대동동에 있는 총대 부속병원 건물을 인수하여 은행동 소재 부속 한방병원을 이전하였다. 새로운 한방병원은 지하 1층, 지상 8층에 건평 2,500평의 건물로 180병상을 갖추고 동·서 의학의 협력 체제를 유지

하면서 현대적인 한방 의료 시설을 할 수 있는 최신식 시설과 우수한 의료진을 갖추게 되었다. 따라서 부속 한방병원은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대학 병원의 기능을 완벽하게 실현하게 되었다.

'88학년도에는 국민윤리학과를 철학과로 개편하고 환경공학과, 통계학과, 미생물학과 등 3개 학과를 증과하였으며 8개 학과가 각각 증원되어 이제는 22개 학과에 입학 정원 980명을 수용하는 종합대학 수준의 규모로 발전하게 되었다. 동시에 철학과, 법학과, 경영학과, 한의학과 등의 4개 학과에 석사과정 설치가 인가되고 최초로 대학원이 설립되어 학문의 전당으로서 손색없는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개교 이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온 본교는 '88년 10월 문교부로부터 대만의 종합대학교 전환 인가를 받게 되어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제는 명실상부한 지방의 명문 사학으로 발돋움하는 전환점에 서게 된 것이다.

'89학년도에는 의류학과 및 2부에 전자계산학과,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등의 4개 학과가 증과되어 학부과정은 26개 학과에 입학 정원 1,110명을 수용하게 되었으며 대학원 과정에도 행정학과, 수학과가 신설되어 6개 학과로 증가되었다. '88년 11월에 초대 및 제2대 이사장이었던 임흥규선생이 임기 만료로 사임하면서 제3대 이사장에 오용준선생이 취임하였다. 종합대학교로 전환되면서 '89학년도를 맞이하여 문과대학, 법경대학, 이과대학, 공과대학, 한의과대학 등 5개 단과대학으로 종합대학교 체제를 갖추어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다. 종합대학교로 개편되면서 3월 2일 교수 직선 제도에 의해 본인이 초대 총장에 취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4. 發展計劃

설립자의 숭고한 건학 이념 구현 노력과 지속적인 교육 투자 노력의 결과, 본교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으나 현재의 위치에 만족하고 안주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학은 끊임없이 미래의 지도자를 배출해야 하는 대학 고유의

본질과 사명 때문에 항상 미래지향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찬란했던 백제 문화의 얼과 유산을 계승하고 닦쳐 올 21 세기에 도래할 서해안 시대를 선도하며 앞으로의 지방화 시대의 선도자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명실상부한 명문 사학으로 응비하기 위해서 종합대학교로 첫 출발을 하면서 본교는 새로운 각오와 지혜로 끊임없는 발전을 추구해 나가려고 한다.

첫째, 본교의 모든 구성원—교수, 학생, 직원, 재단, 동문, 학부모 모두가 대학 발전을 위하여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여 민주화 시대에 걸맞게 자율적인 발전과 개혁을 이룩하기 위해 금년 6월 30일 대학발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협의의 기구인 이 위원회는 다양하고 민주적인 의견 수렴과 발전의 지혜를 함께 나누는 구심점의 역할을 수행하리라 기대된다.

둘째, 종합대학교 운영에 적합한 자율적인 행정 체계 수립과 더불어 능률적인 대학 행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종합기획실을 운영하고자 한다. 지역 사회의 여망을 안고 명문 사학으로 응비하려는 마스터 플랜을 일관성 있고 계획성 있게 기획·운영·추진해 나갈 종합기획실의 존재는 매우 중요할 것이다.

셋째, 내실화의 추구이다. 교수들의 연구 활동 촉진과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 조성에 최대한의 지원 체계를 강화할 것이다. 교내 각종 연구소의 연구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수준 높은 학술 행사의 개최와 유치에 적극 노력하며, 대덕연구단지의 전문 연구소나 기타 산업체들과의 연계 속에 産·學·研 협력 체계를 추진하여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기여도를 확대해 나갈 것

이다. 또한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산학협동, 기업체 독지가 등의 지원을 통한 다양한 장학 기금의 조성을 위해 가일층 노력할 것이다.

네째, 국제화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기존의 해외 자매학교 외에 미국, 중국 등지의 대학들과 자매 결연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교수들의 해외 연수 기회 확대와 국제 학술 대회의 유치 및 교류의 활성화를 추구할 것이다. 또한 국제화 시대에 걸맞게 수준 높은 학문의 연구 성과를 드높이도록 국제 학술 정보의 활발한 교류와 이용이 가능하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용운동 캠퍼스는 종합대학교의 캠퍼스로는 그 공간이 좁기 때문에 제2의 캠퍼스를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 앞으로 '92년까지 9개 단과대학에 14개 학과를 추가 증과하여 지방 명문 사학으로서 자랑스런 대학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 나갈 것이다.

이러한 대전대학교의 발전 방향은 결코 어느 한 사람의 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수를 비롯한 교직원과 학생 그리고 재단의 삼위일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교수는 효율적인 강의와 함께 수준 높은 연구를, 직원은 능률적인 학사 지원을 그리고 학생은 학업에 정진할 때 보다 차원 높은 대학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종합대학교로 첫 출발하여 응비의 나라를 퍼기 시작한 본교의 위대한 미래를 다함께 그려보면서 앞으로 교수·직원·학생 그리고 학부모와 지역 사회 여러분의 협조와 관심 속에서 명문 사학으로서의 대전대학교를 기약해 본다. *